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시현.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판단

1. 전주 주요 뉴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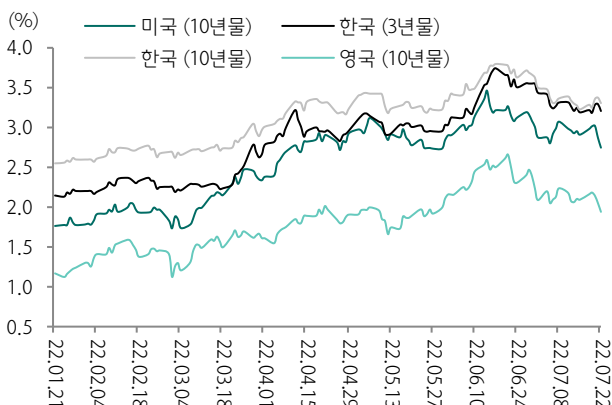
- 정부가 금산분리를 비롯해 아날로그시대의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대거 손보기로 함.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다양한 비금융 신 사업에 진출해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림. 금융위는 4대분야, 9개 주요과제를 포함한 금융규제 혁신 과제 발표
- 금융위가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제한 조항 개정에 나서기 전에 더욱 발빠른 규제 완화를 위해 하위 법령을 우선 변경할 것으로 전망. 15%로 제한한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규제를 풀기 위해 '금융업 관련성' 해석을 확대해 금융권 수요를 먼저 채워줄 것이라는 관측
- 신한금투가 7월말까지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할 예정. 매각가격은 현 장부가 1,800억원의 3.6배에 이르며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번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게 되었다는 평가
- SK텔레콤, 하나금융과 4,000억원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발표. SKT는 3,300억원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3,300억원 규모의 하나금융 지분 매입 예정. 하나카드는 1,000억원 규모의 SKT와 SK스퀘어 지분 매입 예정

2.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2년 7월 22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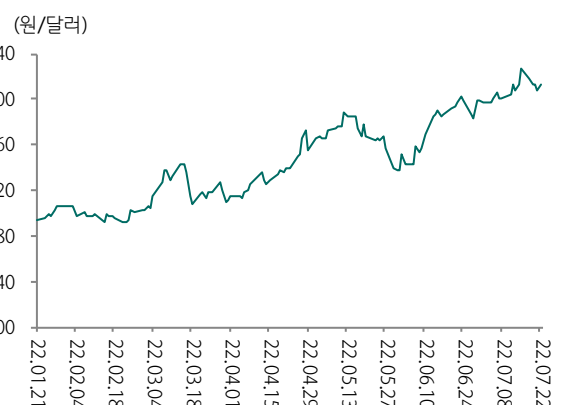
	PBR (2022F)	PER (2022F)	ROE (2022F)	ROA (2022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0.91	9.9	9.3		1,886,496.9	2.7	-0.7	-11.5	-19.6	-820.5	-31.7	1,104.0	-342.5
은행	0.32	3.2	10.4	0.72	84,071.0	7.4	-9.1	-21.1	-9.8	-8.3	-2.2	1.0	4.4
KB 금융	0.38	3.8	10.3	0.74	19,689.8	8.4	-6.0	-22.9	-13.2	-4.0	4.6	13.2	-9.7
신한지주	0.39	3.9	11.2	0.80	18,286.1	6.7	-10.0	-15.4	-3.1	-0.9	-2.3	11.7	-6.8
우리금융	0.31	2.8	11.5	0.67	8,773.1	9.5	-9.4	-25.6	-5.1	2.3	-0.1	-4.6	-3.4
하나금융	0.29	2.9	10.4	0.71	10,696.9	6.8	-14.3	-25.8	-14.0	-4.2	-3.2	-19.3	23.6
기업은행	0.26	2.6	9.4	0.65	6,951.8	5.2	-9.3	-19.5	-9.3	1.7	1.8	-2.7	0.5
BNK 금융	0.22	2.5	9.0	0.66	2,170.7	6.7	-5.8	-17.2	-20.7	-3.2	-1.7	2.4	0.7
DGB 금융	0.23	2.5	9.5	0.61	1,322.7	6.5	0.9	-15.1	-16.6	0.8	-0.6	-0.2	-0.7
JB 금융	0.32	2.5	13.1	0.99	1,461.6	6.0	-7.3	-17.6	-11.1	-0.7	-0.6	0.5	0.2
카카오뱅크	2.51	48.6	5.3	0.77	14,718.2	3.3	-14.4	-29.1	-47.6	-6.7	1.3	7.2	-0.6
삼성카드	0.46	6.3	7.4	2.03	3,556.9	3.2	-2.7	-7.1	-2.5	2.0	1.7	-1.5	-0.4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3.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7.4% 상승해 KOSPI 상승률 2.7% 대비 4.7%p 초과상승. 초과상승 전환의 배경은 1)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한달반 동안 국내 은행주의 하락 폭이 25%를 상회하는 등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이 컸던데다 2) 주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0%를 다시 상회하고, 미국 기업 실적들도 예상치를 웃돌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진정되며 각국의 주가지수들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3) 미국 은행주 실적 또한 우려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은행주들의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해 국내 은행주 투자심리도 개선되었기 때문. 다만 ECB가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하면서 3.03%에 달하던 미국 국채금리가 목요일부터 큰 폭 하락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미국 제조업·서비스·합성 PMI 지수가 2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지표로 확인되고 스넵 등 기술주들의 실적 쇼크까지 더해지며 국채금리 추가 급락 중.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5%로 한주간 18bp 하락했는데 목·금 이틀동안에만 28bp나 급락. 2년물 금리도 2.97%로 한주간 16bp 하락해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은 지속(-22bp). 한편 국내 시중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급락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전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2%로 1bp 상승했고, 10년물 금리도 3.30%로 6bp 상승. 원/달러 환율은 ECB의 빅스텝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누그러뜨려 1,313.0원으로 마감하면서 한주동안 13.1원 하락했음. 은행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주체별 은행주 매매 동향은 한산한 편.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주 동반 순매도세는 없어졌지만 각각 83억원 순매도, 10억원 순매수에 그쳐 매매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음
- 전주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뚜렷한 특징주는 없었음. 다만 우리금융과 KB금융 주가 상승 폭이 각각 9.5%와 8.4%에 달해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그 외 대부분의 은행들이 6~7%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 반면 카카오뱅크와 삼성카드는 한주간 상승률이 3.3%와 3.2%에 그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던 편
- 4대 금융지주사들과 기업은행의 2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 5대 은행 순이익은 약 4.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6.0% 감소. NIM 상승 폭이 예상을 소폭 상회하며 순이자이익이 전분기대비 6.6%나 급증하고 수수료이익도 4.0% 증가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손 확대 등으로 인해 기타비이자손실은 1분기 3,080억원에서 2분기에는 1.1조원으로 확대됨. 2분기 대손충당금은 약 1.7조원으로 1분기 1.0조원에서 증가했는데 이 중 미래 경기전망을 반영한 추가 충당금 9,100억원을 제외한 경상 충당금은 약 8천억원 수준임(1분기의 경우 코로나 추가 충당금 2,700억원을 제외한 경상 충당금은 약 7천억원). 유가증권관련손실 외에도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 감소 요인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RWA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모든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요인. 전체적으로 실적은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내용면에서 크게 부진한 상황은 아니었음. 금리와 주식시장, 환율 등이 추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기타비이자손실 요인은 3분기에는 소멸될 것이고, NIM은 추가 상승이 예상되며 보수적 추가 충당금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2분기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 큰폭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 전주에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후 1차 회의를 개최. 1)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등 금융규제 혁신 추진방향과 2)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가지 안건을 논의. 금융규제 혁신은 디지털전환 촉진,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고,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부수업무 범위 제한 완화 등의 방향인 듯. 은행주식에 대한 소위 규제 완화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단기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뉴스 이후 제주은행 주가 변동성이 큰폭 확대 중인데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우리는 지난 위클리에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은행주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다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에 국한해서 바라볼 필요. 경기침체 우려는 당분간 진정되기보다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규제 우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장기화될 공산이 큼. 의미있는 은행주 반등에 필수적인 외국인 수급 또한 아직 본격화될 조짐 없음. 업종내 방어적 포트폴리오 권고

4.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금주 선호 종목] 카카오뱅크, 우리금융

- 카카오뱅크는 2분기 중 대출성장률이 다소 회복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상당폭 약화될 전망. 연금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급 버팀목 역할 예상되고,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들보다는 규제리스크 노출 강도가 약할 수 밖에 없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 우리금융의 경우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 잔여지분 1.3% 매각 이후에는 대량 매물 관련 오버행 우려는 거의 소멸되는 셈인데다 대출성장률과 마진 양호했고, 비이자이익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2분기 실적도 유일하게 컨센서스를 상회

5. Global Peer Table

(2022년 7월 22일 종가 기준)

	PBR (2022F)	PER (2022F)	ROE (2022F)	ROA (2022F)	Mkt. Cap. (bil.)	Performance(%)			
						1W	1M	3M	YTD
KOSPI	0.91	9.9	9.3		1,886,496.9	2.7	-0.7	-11.5	-19.6
은행	0.32	3.2	10.4	0.72	84,071.0	7.4	-9.1	-21.1	-9.8
KB금융	0.38	3.8	10.3	0.74	19,689.8	8.4	-6.0	-22.9	-13.2
신한지주	0.39	3.9	11.2	0.80	18,286.1	6.7	-10.0	-15.4	-3.1
우리금융	0.31	2.8	11.5	0.67	8,773.1	9.5	-9.4	-25.6	-5.1
하나금융	0.29	2.9	10.4	0.71	10,696.9	6.8	-14.3	-25.8	-14.0
기업은행	0.26	2.6	9.4	0.65	6,951.8	5.2	-9.3	-19.5	-9.3
BNK금융	0.22	2.5	9.0	0.66	2,170.7	6.7	-5.8	-17.2	-20.7
DGB금융	0.23	2.5	9.5	0.61	1,322.7	6.5	0.9	-15.1	-16.6
JB금융	0.32	2.5	13.1	0.99	1,461.6	6.0	-7.3	-17.6	-11.1
카카오뱅크	2.51	48.6	5.3	0.77	14,718.2	3.3	-14.4	-29.1	-47.6
삼성카드	0.46	6.3	7.4	2.03	3,556.9	3.2	-2.7	-7.1	-2.5
미국									
S&P 500	3.67	17.4	23.1	5.87	34,842.5	2.6	5.5	-6.9	-16.9
은행	1.09	10.0	10.6	0.86	1,277.7	2.8	3.8	-7.8	-21.5
Wells Fargo	0.98	10.5	9.3	0.85	163.6	5.0	11.8	-6.3	-10.0
JPM	1.27	10.2	12.7	0.89	337.1	1.6	0.5	-8.7	-27.5
CITI	0.54	7.3	7.6	0.63	100.5	3.9	10.0	2.4	-14.0
BOA	1.07	10.4	10.5	0.85	269.3	3.7	2.5	-10.5	-24.9
US Bancorp	1.62	11.2	14.1	1.09	70.9	2.4	3.6	-5.2	-15.1
PNC	1.50	11.1	13.1	1.12	66.9	5.4	4.3	-5.7	-19.3
BB&T	1.10	9.8	10.9	1.22	64.1	1.5	1.9	-4.4	-17.8
중국									
상해A주지수	1.32	11.2	11.1	1.00	44,811.7	1.4	1.5	8.2	-10.2
은행	0.58	4.8	12.0	0.95	7,066.5	2.0	-1.1	-4.9	-7.5
공상은행	0.50	4.4	11.8	1.01	1,494.4	1.8	-1.1	-3.0	-4.8
건설은행	0.51	4.4	12.1	1.03	1,081.6	2.0	-0.7	-4.5	-4.4
농업은행	0.45	4.0	11.2	0.85	977.8	3.3	1.8	-0.9	-3.1
중국은행	0.44	4.3	10.8	0.83	847.7	2.7	2.4	0.2	1.0
교통은행	0.40	3.9	10.3	0.79	320.3	2.7	0.3	-3.8	0.4
초상은행	1.09	6.8	17.0	1.40	903.4	2.1	-5.5	-12.6	-26.9
일본									
NIKKEI	1.62	15.6	9.7	2.39	473,659.4	4.2	6.9	3.1	-3.0
은행	0.47	8.0	6.1	0.29	34,362.5	3.4	-0.3	-1.1	9.8
Mitsubishi UHF	0.53	8.2	6.6	0.32	9,717.1	4.4	-2.3	-4.4	17.1
Sumitomo Mitsui Financial	0.46	8.0	5.9	0.29	5,630.8	2.6	1.1	3.3	3.9
Mizuho	0.42	7.1	6.1	0.25	4,015.8	2.8	1.5	-0.6	8.1
Sumitomo Mitsui Trust	0.57	9.2	6.3	0.28	1,597.2	3.5	0.4	5.1	10.7
유럽									
MSCI Europe	1.69	12.0	11.4	0.93	11,090.7	2.7	5.1	-4.4	-11.7
은행	0.58	7.4	7.9	0.44	695.4	3.0	-6.0	-7.7	-15.1
HSBC	0.70	9.9	5.8	0.41	103.0	0.3	-3.4	-1.5	14.8
Santander	0.43	4.8	9.3	0.56	40.9	1.1	-13.3	-21.7	-17.3
BNP Paribas	0.47	5.3	9.0	0.37	54.1	5.4	-10.7	-9.3	-27.9
Credit Agricole	0.41	6.8	5.9	0.17	25.8	3.3	-7.9	-10.6	-32.2
Deutsche	0.28	5.4	5.3	0.25	17.0	5.2	-15.0	-23.1	-25.4
Unicredit	0.31	6.5	4.7	0.30	17.2	-0.9	-16.8	-8.1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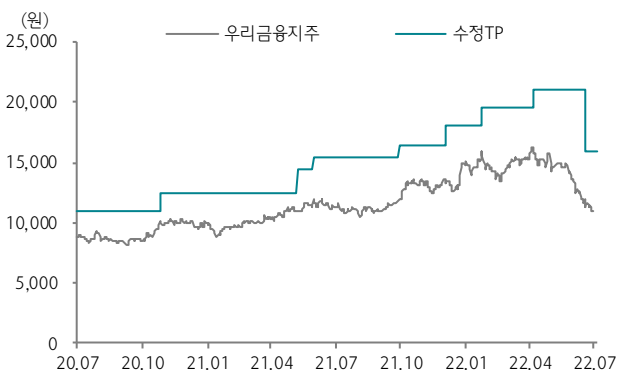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카카오뱅크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2.7.7	BUY	40,000		
22.5.24	BUY	48,000	-24.49%	-13.54%

우리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2.7.7	BUY	16,000		
22.4.25	BUY	21,000	-32.41%	-25.24%
22.2.10	BUY	19,500	-23.84%	-16.92%
21.12.21	BUY	18,000	-21.41%	-11.94%
21.10.15	BUY	16,500	-20.53%	-17.58%
21.6.16	BUY	15,500	-27.32%	-22.90%
21.5.24	BUY	14,500	-22.00%	-19.66%
20.11.12	BUY	12,500	-19.67%	-9.60%
20.3.18	BUY	11,000	-22.05%	-5.91%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92%	5.08%	0.00%	100%

* 기준일: 2022년 7월 22일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옥)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2년 7월 2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옥)는 2022년 7월 25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